

고객과 미래를 신뢰로 잇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은행



올 라이프 디지털 플랫폼, 신한 쏘

신한은행은 고객과 미래를 신뢰로 잇는 디지털 컴퍼니를 꿈꾸며 미래 금융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가입자 1,450만 명을 보유한 '신한 쏘(Sol)'은 금융과 비금융서비스를 연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올 라이프 앱을 지향한다. 쏘의 자산관리서비스 '머니버스'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한데 모아서 볼 수 있고, 예상 금융 일정과 예상 잔액뿐만 아니라 공모주, 아파트 청약, 나이스키로우 일정까지 주요 자산관리 일정 확인이 가능해 필요한 정보 수집이 한 번의 접속으로 가능하다. KBO 프로야구 스폰서십을 기반으로 한 '쏘야구' 메뉴에서는 월간MVP, 올스타 팬투표 등 KBO 공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야구 상식 퀴즈와 메타버스 팬미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야구팬들에게 재미와 혜택을 선사한다. 또한, 금융권 최초의 음식 배달앱 '땡겨요'를 출시해 입점 가맹점주와 고객, 배달 라이더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통신·게임·식음료 등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로 금융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미래형 점포인 디지로그 브랜치를 개설하였으며, 디지털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서도 디지털 맞춤 영업점을 개점하는 등 고객이 바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으로 사회적 금융 선도

신한은행의 금융보급 창업이념은 고객, 사회와 상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사회에 더욱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 대출 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과 세무지식을 강화하고자 맞춤형 온라인 웨비나를 실시해 힘들고 지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객 가치 창출과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1년 고객만족도 3관왕을 수상함은 물론, 국내 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 탈석탄금융 선언 등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건강한 스타트업 육성, 금융 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를 위한 CSR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생의 선순환을 끌어내고 있다.

1982년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신한은행은 지점 3개, 직원 279명의 작은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고객과 미래를 신뢰로 이어주는 디지털 컴퍼니'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 중심 원칙과 관행을 깨는 혁신을 통해 한국 금융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은행권 최초의 고객만족센터 설립, 무인점포·온라인뱅킹 도입, 리테일 레볼루션(Retail Revolution) 추진 등 신한은행이 주도한 수많은 금융의 혁신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주)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은행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한은행은 모든 연령층이 편리한 금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